한반도 평화와 무주발전 염원

3·1운동 100주년 기념 무주군민 평화대회

'3·1운동 100주년! 새로운 100년을 여는 무주군민 평화대회'가 지난 1일 무주군청 광장에서 개최됐다.

무주군민 평화대회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100여 곳에 달하는 관내 기관·사회·종교·시민단체와 학생 등 5백여 명의 군민들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무주읍 반딧불시장 사거리와 무주향교 앞에서 진행된 길놀이를 시작으로 기독교연합회 성가대와 촛불밴드, 어린이합창단 공연, 그리고 3·1 독립선언서 낭독을 비롯한 시가지 행진, 무주선언문 낭독, 무주군민 대합창 등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3·1운동 100주년! 새로운 100년을 여는 무주군민 평화대회'가 지난 1일 무주군청 광장에서 개최됐다.

황인홍 군수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우리군민들이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 가슴 벅차다"라며 "당당한 무주군민, 자랑스러운 무주군민으로서 지난 100년을 기리고 앞으로의 100년을 다짐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황인홍(무주군수), 유송열(무주군의회 의장),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만규(무주군기독교연합회 회장), 나승인(마을교육공동체 대표) 무주군민 평화대회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함께 낭독한 무주평화선언문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에 당당하고 주체적으로 앞장서자는 내용과 △청정무주를 보존하기 위해 상생과 공존의 지혜를 발휘할 것, 그리고 △정의롭고 공정하며 건강한 무주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 등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무주읍 주민 김 모 씨(52)는 "그날의 함성이 귓전에 들리는 듯 가슴 뭉클했다"라며 "민족의 독립을 열망하고 세계 평화를 갈구하던 값진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 우리무주를 있게 했다는 것을 상기하며 건강한 무주가 되는데 일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가 지난 1일 장수군 산서면사무소와 3·1운동 기념비에서 장영수 군수, 김종문 의장, 박용근 도의원, 유족,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제100주년을 맞아 산서면 사무소부터 산서면 동화리 괴정마을 3·1운동 기념비까지 가두행진(왕복)이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3·1운동 100년의 역사를 기억했다.

이후 장영수 군수의 초헌관, 김종문 의원 아헌관, 박용근 도의원 종헌관으로 분향 제례가 거행되며 참석자들은 기념비 앞에 분향을 하며 독립운동으로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행사 끝은 유족 대표의 독립선언문 낭독과 산서중·고등학교 학생들의 3·1절 합창, 만세삼창이 진행돼 100년 전 그날의 함성을 되새겼다.

장영수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자주독립을 부르짖은 선열들의 뜻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국가 암 검진 알리기 최선

군 홈페이지 · 유인물 홍보

무주군이 군 홈페이지와 별도의 유인물(우편발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국가 암 검진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은 만 20세 이상 여성으로 2년마다, 간암은 고위험군인 만 40세 이상(6개월 마다), 위암·유방암은 만 40세 이상으로 2년 마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으로 해마다 분변검사를 받으면 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 하위 50%(2018년 11월 부과 기준 지역 가입자 9만4,000이하, 직장 가입자 9만3,000원 이하)에 해당하면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암 검진을 통해 5대 암이 발견된 건강보험가입자는 연간 2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든 암에 대해 연간 220만원까지 암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과 간암, 위암, 유방암, 대장암 등에 대한 국가 암 검진은 국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면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지난달 28일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자동차등록사업소 인근)에 정식 개장했다.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 정식 개장

특별 할인판매 · 즉석 뽑기 이벤트 실시

진안군은 전주시민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지난달 28일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자동차등록사업소 인근)에 정식 개장했다.

이날 군은 지난달 25일 임시 개장한 기간 동안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을 성원해 준 소비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바베큐, 찰밥, 두부, 떡, 고로쇠, 두부 등 진안고원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무료 시식 행사와 함께 진행했다.

또한 정식 오픈을 기념하여 오픈 특별 할인판매와 참석한 300여 명에게 즉석 뽑기 이벤트를 실시하여 진안 특산품을 증정하고 3만원 이상 직매장 구매고객을 대상으로는 한 달 후 행운권 추첨을 통해 건조기, 스타일러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군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농산물 소요량 예측과 수급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정식 개장했다.

특히 개장 기간 동안 1일 평균 8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진안 돼지고기와 홍삼한우는 육질이 쫄깃쫄깃하고 담백한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군 관계자는 "직매장을 통해 진안고원의 신선한 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단순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장소를 넘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 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장한 직매장은 지상 3층 신축 건물로 1층 495㎡ 규모에 신선채소, 가공품, 정육, 홍삼전문 판매코너, 홍삼카페 및 족욕체험장 등을 갖췄고 2층에는 신선한 진안고원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로컬식당이 들어섰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청년 모집

장수군은 농업법인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2명을 모집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농업법인 참여자는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접수 진행되며, 신청은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참여자로 선정 될 경우 지역정착 및 직무경험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별 월 18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

장영수 군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의 적성과 일자리 경험을 바탕으로 장수군에 정착하고, 일자리 창출로 더욱 더 활기찬 장수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장수군은 '지역공동체 활력화 청년현장활동가 육성', '장수융복합가공지원센터 운영지원', '취업정보센터 일자리담당관 육성', '농업법인 청년일자리',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지역활력일자리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 3억4000만원을 투입해 18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홈페이지 (http://www.jangs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메아리

진안군 통학택시 운영

진안군은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통학택시 운영을 시작한다.

군은 관내 중고등학교 개학일정에 맞춰 3월 4일부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책임질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상반기 통학택시 이용 대상자는 관내 10개교 총 193명(중학생 114, 고등학생 79)이며, 총 32대(택시 30, 25인승 버스 2)의 차량이 수송에 동원된다.

201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 사업은 야간학습 등 버스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 해 학생들은 등하교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버스 막차시간 문제로 포기했던 야간자율학습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등하교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통학택시 지원을 통해 통학 환경 편의제공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업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통복지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등록야영장 지원 공모 선정

무주군은 관내 야영장 5곳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등록야영장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900여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4곳이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부문에 선정돼 소방 및 전기·가스, 상·하수도, 조명, 낙석·붕괴방지 시설 등을 개보수할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화재안전성 확보 부문에 선정된 1곳은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이전 설치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무주군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와 화재 안전성 확보에 총 9,800여만원(국비 3,920만 원, 군비 2,940만 원, 자부담 2,94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연내 사업마무리를 위해 제1회 추경을 통해 관련 군비를 확보할 방침이다.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김병옥 관광육성팀장은 "야영이 새로운 여가문화로 확산이 되면서 안전확보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도 함께 대두가 되고 있다"라며 "공모에 선정된 곳 외에도 관내 야영장들이 모두 최상의 안전·위생환경을 갖추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살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 관내 소재 등록(관광진흥법) 야영장은 총 27곳이다.

/무주=전문선 기자